제4강 송기원 「늙은 창녀의 노래」

(1교시)

송기원「늙은 창녀의 노래」
《문예중앙》 1993년

1. 작가연보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경외성서』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회복기의 노래』가 함께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이후 예리한 현실인식과 탐미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소설집 『월행』(1979),『다시 월문리에서』(1984)와 장편소설 『너에게 가마 나에게 오라』(1994), 시집『그대 언 살이 터져 시가 빛날 때』(1983),『마음속 붉은 꽃잎』(1990)을 냈으며, 제2회 신동엽창작기금(1983)과 제24회 동인문학상(1993)을 받았다.

2. 줄거리
마흔 하나의 늙은 창녀에게 어느 날 점잖은 중년의 사내가 찾아온다. 늙은 창녀는 왜 하필 나이 많은 여자를 찾느냐며 의아해 하지만, 여느 손님과는 다른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계기, 단 한번 찾아온 아픈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별, 현재 자신의 처지와 솔직한 마음들을 이야기하게 된다.

3. 플롯구조
현재-과거-현재

4.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5. 문체의 특징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의 리듬감과 눈에 보이는 듯한 생생하고 감각적인 묘사. 아련함이 서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린 구슬픈 노래를 듣는 듯한 문장.

6. 묘사력
- 꿈에, 참 많이도 고향을 봤지라우. 근디 꿈만 꾸면 꼭 고향은 봄이어라우. 아매도 나가 고향을 떠날 때 봄이어서 그란 모냥이오. 참꽃은 참꽃대로 온 산에 발갛게 타고, 논에는 자운영이 무신 공단이불모냥 질펀하게 깔레서 분홍빛으로 피어나는디, 저 아래 바다 쪽으로는 유채꽃들이 덩달아 피어서, 오메, 밤에도 마치 횃불을 킨 것맨키롬 환했어라우. 글다가 꽃들이 한끄번에 벙글어져서, 살구나무, 앵두나무, 복숭나무, 배나무, 사꾸라나무, 그렇게 나무란 나무에 모다 꽃이 피어갖고 마침내 꽃사태가 나먼, 오메, 가심이여, 멀리서 색깔만 봐도 가심부터 우선 벌렁벌렁 뛰놀던 그 환한 꽃들이 시방도 눈에 선하요. (…) 어디 야들야들하기만 했간디요. 심들도 좋아서 일들은 또 얼매나 잘했는디라우. 산에 가먼 참꽃은 참꽃대로 입가생이가 벌겋게 따묵음시롱도 솔가리나 갈퀴낭구는 낭구대로 머릿짐으로 한짐씩 해갖고 내레오고, 밤이먼 한방에 모여서 수틀을 붙들고 앉아 모본에 따라 학을 날아올리고 또 원앙을 짝지어줬지라우. 그람서 안직 논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지감자 모종이며 꼬치 모종에서 부텀 봄남새들 씨 뿌리는 밭일에까장 매달리기도 했지라우. 그렇게 흙을 만지다보면, 삼동내내 얼었던 흙이 풀레갖고 거그서 나는 흙냄새는 무신 생콩 비린내 비슷함시롱 쇠여물 냄새도 쬐깜 섞인 것 같어갖고, 그거이 얼매나 상큼했간디요.

- 오메, 쩌그 창문에 있는 보름달이 뿌얀 걸 봉께, 나가 아직까장 울고 있었든 모냥이요잉.

(2교시)

6. 묘사력
- 고향에 너무도 가고 싶은 마음과 처지 상 갈 수 없다는 마음이 동시에 떠오르는 괴로운 심리 묘사

- 내 애기 땜시 나도 바로 그런 여자가 되얐는디, 나 목심이 붙어 있는 한 우찌게 애기를 띤단 말이요? 애기가 뱃속에서 폴딱폴딱 뛰노는 거이 느께지먼, 오메, 황홀한 거! 기냥 머이냐, 꿈꿀 때먼 언제나 고향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참꽃이나 자운영이나 유채꽃맨키롬 천한 나 몸뚱아리까장 벌겋게 혹은 노랗게 꽃물이 들어갖고 가슴까장 벌렁벌렁 뛰드란 말이요.

7. 에피소드 적절성
<늙은 창녀와 손님의 만남>
- 참, 손님. 주제넘게 손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고잖은 것이 있는디, 괜찮겠능게라우? 뭣이냐고라우? 글씨요. 벨건 아니구만이라우. 그래도 손님 얼굴을 봉께 멜갑시 궁금해지느만이라우. 멋이냐면, 그랑께, 왜 해필이면 손님이 나같이 나이 묵은 여자를 찾는다요? 찾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라우, 젊고 이쁜 아가씨들을 놔두고 해필이면 나이 묵은 여자를 찾응께 한번 해본 소리여라우. (155p)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창녀촌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
- 왜 방직공장에 안 가고 일로 오게 되얐냐고라우? (167p)
- 집에서 도망나와갖고 서울로 갈라고 송정리역에서 기차를 지달리고 있는디 점잖게 생긴 아자씨가 나한테 오등만 말을 겁디다. (167p)
- 그래도 처녀가 복이 있어갖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난 거여. 저 사람들도 나한티는 꿈쩍 못 항께. 나가 뭐이냐면 청소년 선도위원이여. 처녀는 청소년 선도위원이 뭔지 몰르제? (169p)
- 아자씨, 그라먼 아자씨가 나도 취직을 시케주실 수 있단 말이요? (169p)
- 그라고 나서 아자씨는 역전에 있던 나쁜 사람들을 따돌래야 한담서, 그랄라먼 우선 서울하고 반대짝으로 가야 한다고 목포로 가는 기차를 탑디다. 저녁 무렵에 기차를 탔는디 목포에 내링께 깜깜한 밤이 되야뿌렀습디다. 그 아자씨가 오늘은 너무 늦어서 암디도 못 가고 쬐깜 있으면 통행금지가 시작됭께로 암디서라도 하룻밤을 보내야 한담서 나를 데꼬 역전 앞에 있는 골목으로 가덜 않겄소? 꼬불꼬불하게 생긴 골목을 이리 돌고 쩌리 돔서 한참을 가등만 그 아자씨는 어떤 여관으로 마치 자기 집에 온대끼 혼자서 불쑥 들어가뿌러라우. (170p)
- 을마나 지났을까, 뭐이 이상해서 눈을 떠봉께 그 아자씨가 내 옷을 벳기고 있습디다. 오메, 아자씨, 하고, 나가 소리를 질를라 그랑께 그 아자씨가 손으러 나 입을 막등만요. (171p)
- 우찌께 되얐든지간에 나한티는 그 아저씨가 첫 남자가 아닌게라우? (…) 이왕 말이 나왔응께 말이요만, 이런 디 있음서도 나가 딱 한번 사랑이란 것을 해봤는디 그 사람이 누군 중이나 아요? 바로 그 아자씨였어라우. (172p)

<네다바이와의 재회>
- 그만둘라먼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을 때였소. 그때 그 아자씨가 오랜만에 이 골목에 다시 왔어라우. (173p)
- 나 펭생에 딱 한번 소원잉께, 나하고 단 한달만이라도 살림을 하자고라우. 나도 남들모냥 남펜이라고 불러보고, 그렇게 남펜이란 사람한테 삼시 세끼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또 그렇게 애기도 나고잖다고 함서라우. 그 아자씨사 막상 갈 데도 없는디 호박이 넌출째 굴러왔겠제라우. 근디도 그 아자씨는 승낙하기 전에 한 가지 못을 박습디다. (…) 난중에 딴 소리 하는 것은 아니제? 나가 발걸음을 안해서 그렇제 이래봬도 가정이 있는 몸이시. (174~175p)
- 그렇게 참말로 무신 꿈겔 같은 시간이 흘러갔는디, 그라다봉께, 오메, 나 같은 것도 떠억하니 애기를 배덜 않겄소? (176p)
- 첨에는 참말로 애기를 나야 하겄냐먼서 쭈빗쭈빗하등만, 나가 먼 일이 있어도 기연시 날 거이라고 항께, 그 인사가 차침 드러내놓고 싫은 소리를 해라우. (176p)
- 하루는 골목을 돌아댕김서 손님 방마둥 김밥이랑 박카스를 폴고 밤늦게 집에 와봉께 그 인사가 없어라우. 바안이 어지럽혜져 있고 그 인사 옷도 안 보예서 얼렁 옷장을 열어봉께 이녁 옷은 다 없어져부렀등만요. 들고 나가 이 담에 애기를 나먼 쓸라고 애먼글먼 모다논 돈뭉치도 없어져불고라우. (177p)
- 근디, 근디, 그렇게 좋아서 금자동아 은자동아, 얼르고 달램서서 열달을 채와갖고 애기를 낳아봉께…… 시상에 그거이 뭔 일이다요. 애기가, 내 애기가, 죽어갖고 나왔소. (178p)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8. 주제

상처받고 소외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인간애. 사랑. 휴머니즘.

9. 제목

'늙은 창녀'라는 설정 자체가 호기심을 촉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내용을 끝까지 읽고 났을 때 그 제목이 내용과 호응됨을 다시 느끼게 된다.

▲ 감각적이고 야생적인 문체의 강렬함이 큰 매력.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